

한전기술 052690

2Q22 Review: 숨겨둔 먹거리

유틸리티

Analyst 문경원, CFA
02. 6454-4881
kyeongwon.moon@meritz.co.kr

2Q22, 예상치 못한 원자력 매출 증가

2Q22 연결 영업이익은 56억원(흑전 YoY)을 기록하며 컨센서스(14억원)와 당사 예상치(-9억원)를 상회. 매출액(1,100억원)이 당사 예상치(997억원)를 100억원 가량 상회하면서 발생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주요 원인.

2Q22 부문별 매출액은 원자력 522억원(+17.8% YoY), 원설단 166억원(+7.1% YoY), 에너지신사업 411억원(+170.4% YoY)으로, 전분기 대비 각각 87억원, 20억원, 63억원 증가. 특히 원자력 사업 부문의 매출액 성장이 눈에 띄었는데,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정책으로 인해 O&M 용역이 늘어난 것이 원인. 한림해상풍력 및 한주 열병합 발전 등 대형 EPC 사업의 매출 인식액이 늘어나면서 에너지 신사업 매출도 전분기에 이어 성장 지속.

하반기에도 원자력 O&M 및 에너지신사업 매출 확대 기조는 이어나갈 전망. 2023년에는 신고리 5,6호기 관련 매출의 감소로 원자력 설계 매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으나, 원전 가동기수 증가 및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정책에 힘입어 O&M 매출은 증가할 전망. 신규 원전 없이도 연간 2,500억원 내외의 원자력 매출은 달성 가능하다는 판단. 2023년 실적 전망의 가장 큰 변수는 신한울 3,4호기의 조기 착공 여부. 현재 2024년 착공이 예상되나, 2023년으로 착공 시기가 앞당겨진다면 내년에도 원자력 매출 성장이 가능.

아쉬운 이벤트의 부재와 오버행 리스크

대선, EU Taxonomy, 원전 ETF 출시,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발표 등 원자력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을 이끌어왔던 큼직한 이벤트들이 대부분 마무리. 12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되기 이전까지 눈에 띄는 이벤트는 제한적. 본격적인 상승 구간에 접어들기 위해서는 해외 수주가 구체화되어야 하나, 가장 가시적인 체코 프로젝트조차 2024년 사업자 선정이 예상되는 상황.

한편, 동사의 지분 65.77%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전력은 14.77%의 지분을 매각할 예정.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내 매각 계획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 장내에서 블록딜로 매각될 경우, 2022년 말 기준 PBR 4.9배의 고밸류에이션에 거래되고 있는 만큼 할인율 역시 높은 수준에서 형성이 될 것으로 보임. 오버행 리스크에 유의할 시점.

표1 한전기술 2Q22 실적 Review

(십억원)	2Q22P	2Q21	(% YoY)	1Q22	(% QoQ)	컨센서스	(% diff.)	당사 예상치	(% diff.)
매출액	110.0	75.0	46.7	92.9	18.4	88.4	24.4	99.7	10.3
영업이익	5.6	-0.8	흑전	-4.9	흑전	1.4	300.4	-0.9	N/A
세전이익	6.7	1.6	327.3	-2.4	흑전	2.5	174.1	1.9	259.2
순이익	3.9	1.2	218.1	-1.7	흑전	2.0	97.3	1.2	222.8

자료: 한전기술,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